

프랑스 “TELETEL”

“전세계의 정보를 안방에서”

94년 1월부터 국내 VAN시장이 완전개방된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력 및 마케팅 면에서 취약한 국내업체들에게 자본과 기술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외국의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은 자칫 시장잠식뿐만 아니라 정보주권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 VAN사업은 1990년 통신사업 구조조정과 1991년 전기통신법 전면개정, 한미간 통신협상 타결과정 등을 통해 대외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 사업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VAN사업의 범위, 관리제도측면 등에서는 아직도 민간사업자의 활력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국제VAN이 처음 허용된 이래 데이콤을 비롯, 아시아나항공, 삼성데이타시스템, 에스티엠, 포스데이타, 현대전자, 콤텍시스템 등이 미국, 영국, 프랑스등의 통신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국제VAN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차제에 다양한 DB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유명 VAN업체를 하나씩 소개함으로써, 정보 선진국의 DB개발 및 이용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번째로 프랑스 텔레콤社가 자회사인 인텔마틱社를 통해 운영하는 VAN서비스인 『텔레텔(TELETEL)』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텔

레텔은 흔히 “미니텔(Minitel)”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비디오텍스 서비스로서 국내에는 90년 10월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서비스 개요 및 국내 이용방법등에 대해 소개한다.

『TELETEL』

* 개 요

텔레텔은 프랑스의 기간통신사업자인 프랑스 텔레콤이 운영하는 VAN서비스의 명칭을 말한다. 83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 현재 유럽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며 전세계 30여개 국가에 통신망을 연결 서비스하고 있다.

* 연 혁

텔레텔이 출현하게 된 동기는 이보다 훨씬 앞선 70년대 중반 오일쇼크에서 비롯됐다. 당시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던 프랑스는 많은 정보 및 서비스를 전화선을 통해 제공하게 되면 움직이는데 따른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별도의 자원없이도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전화선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개발을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75년 이같은 방침을 실행에 옮기기위해 컴퓨터와 통신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80년 55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자 전화번호부 서비스를 1차 실험하는 한편, 81년에는 이를 보완한 2차실험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같은해 전송품질, 단말기 성능, 서비스제공에 따른 사회적 영향등을 파악하기 위해 2천 5백가구를 대상으로 190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마무리 실험을 실시, 그 이듬해 텔레텔서비스가 출현하게 됐다.

* 서비스 및 이용현황

DB수 17,000개, 가입자 7백만명

현재 텔레텔은 증권·금융·행정·뉴스등의 정보부문, 특허·과학·의학·건축등 전문DB, 홈쇼핑등의 거래처리 부문, 통신부문, 오락 연예부문에 걸쳐 초창기의 1백배에 해당하는 17,000개 정도의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7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 텔레텔 서비스를 위한 전용단말기(Minitel)가 각 가정과 기업에 현재 5백 60만대 보급되어 있고, 이 단말기가 유럽 전역에 보급된 총 단말기수의 90%를 차지하는 등 최대의 정보서비스 사업자로서 그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직업전문DB 이용시간이 가장 많아

텔레텔이 제공하는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는 검색수를 기준으로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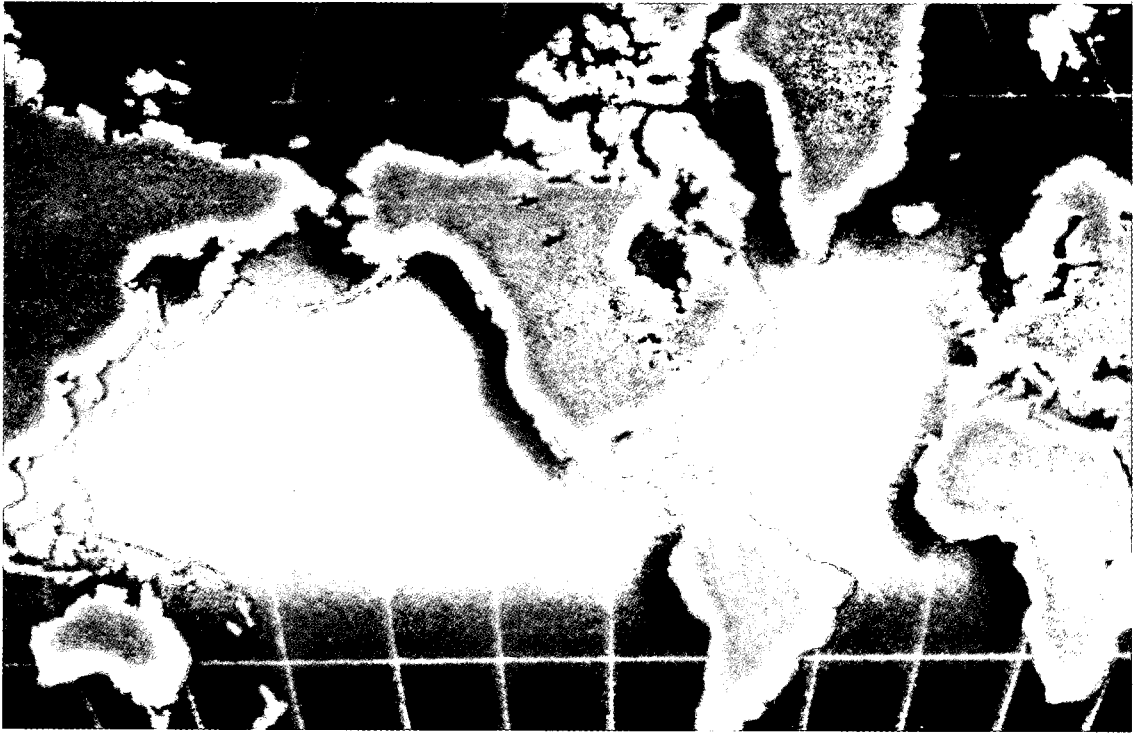
업정보 부문에서는 전자전화번호 안내이며 은행관계서비스, 좌석예약 및 여행시간 안내, 직업적 전문DB서비스, 일반정보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 정보부문에서는 전자전화번호 안내, 좌석예약 및 여행시간 안내, 간행물관련 서비스, 우편주문 서비스, 은행관련 서비스 등의 순이다. 이용시간별로 볼 때는 직업적 전문DB 서비스가 29.5%, 전화번호 서비스가 19.5%, 대화 및 메시지 서비스 15%, 증권 및 은행관련 서비스 11%, 오락게임 10%, 일상 생활정보 9%, 뉴스 등 일반정보 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당 월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87년의 109시간에서 90년에 91시간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가입자의 증가에 힘입어 연간 총이용시간은 87년의 6천2백만시간에서 89년 8천6백만시간, 90년 9천8백만 시간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는 88년말 현재 4백22만명에서 89년에는 5백만명, 90년 5백83만명, 91년에 6백73만명으로 각각 증가한데 이어 92년 5월 현재 7백만명을 돌파했다.

서비스 개시 6년만에 흑자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유럽의 대부분 지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지난해말 현대전자와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프랑스 국내에서 84-92년 사이에 연 평균 40.3%씩 가입자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미국 33.4%, 일본 55%의 연평균 가입자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확장으로 서비스개시 6년만인 89년 손익 분기점에 도달, 흑자로



전환되는 전기를 맞게 됐다.

초창기에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가장 중요

이처럼 텔레텔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게 된 데는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통신시장 보호정책, 사업주체인 프랑스텔레콤의 추진력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누구든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니텔 단말기를 무료보급했으며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ONA(Open Network Architecture)를 채택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에 앞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실험 및 검증과정을 거쳐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전략도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서비스 이용방법 및 요금

미니텔 서비스 전용단말기, 미니텔용 통신에뮬레이터와 모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전화번호(02-720-3615)를 걸어 현대전자에 설치된 VAP(VIDEOTEX ACCESS POINT)에 연결하여 D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요금은 월당 기본료 10,000원에 공공서비스, 기업내서비스, 일반정보, 전문정보등 DB종류에 따라 분당 740원에서 1,880원 가량의 접속요금이 추가되는 종량제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 화란어로 서비스되고 있고 주한 프랑스대사관 과학 기술부에서 제공하는 DB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基)